



서혜순 작 '대나무'

### 전북서도대전 수상작 발표... '대나무' 서혜순씨 대상 선정

# “주변의 격려에 힘입어 열심히 묵향에 심취해”

(사)한국서도협회 전북지회는 제14회 전북서도대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전북서도대전에는 한문부·한글부·문인화부·서각부·전각부·일부 등 6개 부문에 총 350점이 출품돼, 문인화부문의 서혜순(58·전주시 효자동)씨 작 '대나무'가 대상에 선정됐다.

우수상은 구연식(70세·전주시 평화동), 박정영(41세·부산시 동래구), 성기순(61세·대전시 동구)씨가 각각 차지했으며, 특선상 및 삼체상에 21명을 비롯한 특선 91명, 입선 156명이 수장자로 선정됐다.

대상작인 서혜순 씨의 대나무(竹)는 풍속에 괴석을 곁들인 작품으로, 구도가 뛰어나고 묵색이 세련됐다는 높은 평을 받았다.

서혜순 씨는 수상 소감을 통해 “매일 묵향에 빠져 연습에 매진하다보니, 시간의 흐름을 잊어버리곤 했다”며 “주변의 격려와 칭찬에 힘입어 피곤한 줄도 모르고 열심히 묵향에 심취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서혜순씨

이와 함께 원로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구연식 씨의 '한겨죽사(寒居竹事)'는 당의 손과정 초서법을 기본으로 한 소박하고 여유 있는 글자의 구성이 우수했다는 평가를 이끌어냈다.

문인화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박정영 씨의 '매화(蘭)'는 화폭을 휘감는 활달한 구도에 전통적 구름법으로 꽃을 그린 후 약간의 채색을 곁들인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작품이라는 평을 얻었다.

한문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성기순 씨의 '삼봉선생시(三峰先生詩)'는 해맑은 묵법으로 소박한 필획의 구성이 보는 이의 시선을 머물게 하는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았다.

조태수 심사위원장은 “전통 서예의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다양한 표현을 모색하는 작품들이 전국 각지에서 출품됐다”며 “올해는 출품자들이 입서의 수준을 넘어서 창작열이 높은 우수한 작품들로 채워졌으며, 특히 노령화 되어 가는 시대에 맞추어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와 특기를 살려 주는 원로부문과 서각부문에서의 출품작이 돋보였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시상식은 오는 5월 4일 진행되며, 수상작들은 4~10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전시장에 전시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 김만경외애미들노래, 전북민속예술축제 대상

(사)한국예총 전북연합회(회장 선기현)가 주최한 2018 전북민속예술축제에서 김만경외애미들노래와 고창강호항공고등학교 농악판굿이 대상과 최우수작품상을 각각 수상했다.

김만경외애미들노래보존회와 강호항공고농악부는 오는 10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제59회 한국민속예술축제와 제26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에 전라북도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이 밖에 일반부 금상은 남원농악보존회, 은상은 순창북흥농악단, 동상은 김제모악풍물단에게 돌아갔다.

설태종 심사위원장은 “이번 대회에 출전한 작품들은 바쁜 농촌생활 속에서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한마음으로 연습을 충실히 해온 팀들이 많아 의미가 있었다”며 대상작 김만경외애미들 노래에 대해서는 “원형이 잘 보존된 작품으로 지역성이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선기현 회장은 “전북에는 소중히 보존하고 반드시 계승 발전시켜야 할 민속이 많은데, 어렵게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거나 겨우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보존하고 계승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갤러리 슝 '플랫폼(PLATFORM)' ... 김시오 작가 초대

갤러리 슝이 기획초대전 '플랫폼(PLATFORM)'을 연다. '플랫폼(PLATFORM)'은 30~50대로 구성된 7인의 전북 출신 작가들이 2주 간격으로 작품을 선보이는 릴레이 형식의 전시. 9일 김시오 작가를 시작으로 박종찬, 정하영, 김기술, 노성기, 차유림, 국형원 등이 오는 7월까지 신작 위주로 전시를 이어간다.

이번 전시의 첫 문을 여는 김시오 작가는 중요한 것을 잃고 가슴 한 구석에 새겨진 깊은 상실을 작품으로 승화했다.

그는 풀이할 수 없는 후회와 커다란 죄책감, 그리고 자신을 향한 분노, 가눌 수 없는 슬픔 등 형언할 수 없는 상실감에 완전히 방치되어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그에 대한 애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전시작들은 '너'로 인식되는 대상을 잃고 '내가' 어떻게 애도의 과정을 거치는가를 작가의 시선으로 보여준다.

김 작가는 자신이 믿어야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을 잃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대상이 온전하고 평온한 세계의 끝에 다다랐음”으로 간주했다고 말하면서 “이제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매듭지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해은 기자

## 아리와 미르의 이야기, 무용으로

2018 새만금상설공연 아리울스토리3 '해적2: 월영의 검'이 10일 막을 올린다.

아리울스토리는 전북도·새만금개발청과 (재)전북문화관광재단의 주최·주관으로 제작되는 공연관광상품. 새만금의 고유한 공연콘텐츠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 시리즈물로 선보이고 있다.

춤(퍼포먼스) 장르를 이용한 공연은 무용총체극의 형식을 띤다. 재단은 올해 '아리울스토리'의 완성도를 최고로 높이고자 기존의 화려한 군무를 한층 더 강렬하고 힘찬 모습으로 재탄생시켰으며, 새로운 음악 구성으로 극의 역동성을 부각하고자 했다.

공연작에는 김충환 총연출(아리울스토리 2014~2017)을 비롯한 최석열 안무연출(2017 전국무용제 대상작), 김태근 작곡 및 음악감독(2018 평창페스티벌 피막식 참여), 임일진 무대미술, 원동규 조명디자인, 선미수 의상디자인 등이 연출진으로 참여했다.

극은 여주인공인 '아리'가 축제에서 우연히 만난 '미르'와 사랑에 빠지게 되지만, 곧 아리울을 빼앗기 위해 침략한 해적왕 '열왕'에 의해 궁지에 몰리게 되는 상황을 그린다. 아리는 연인인 '미르'와 부족이 인질이 되자 이들을 구하기 위해 열왕과의 결전을 치르게 된다.

이병천 대표이사는 “새만금상설공연이 올해 새롭게 변화하여 완성도를 높였다”며 “전라도 방문의 해를 맞아 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에게 전북 문화의 힘을 보여주고, 지역민에게 전북의 문화적 자긍심을 심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공연은 10일부터 11월 17일까지 새만금상설공연장인 아리울예술창고에서 매주 화~토요일 오후2시 상설공연 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새만금상설공연 아리울스토리 3 '해적2 월영의 검' 오늘 막 올라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N치즈

벨기에 출신 지정된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